

# 방글라데시인프라협력관 월별 활동보고서

2024. 1

한-방글라데시 인프라협력센터

## □ 경제 동향

## ○ 중앙은행, 외환 순보유액 177억달러(IMF 기준 충족)

- 중앙은행의 12월 외환순보유액이 약 177억 달러에 달해 국제통화 기금(IMF)의 기준치를 충족함으로써, 47억 달러 대출 패키지 중 세 번째 지급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음.

## ○ 잔여 외환보유액 203억 8천만 달러 (ACU 12억 7천만 지불 차감)

-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액은 아시아결제연합(ACU)과의 11~12월 수입대금 12억7000만 달러 결제에 따라 203억8000만 달러를 기록.

## ○ 일본, 외국 원조 제공국 1위

- 일본, 방글라데시에 대한 ODA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원조 지출국 1위를 차지. 23 회계연도 수치로 따지자면 일본은 ADB보다 더 높고 WB와 거의 유사한 수준.

\*일본은 23 회계연도에 19억 달러 상당의 차관과 보조금 원조, ADB는 15억 6천만 달러, WB는 19억 3천만 달러 원조. 역사적으로 방글라데시의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이번 회계연도(FY) 7~11월(2023~24년) 동안 6억1098만 달러를 원조. ERD에 따르면 이 총액은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의 합계보다 거의 1.5배 높은 수치. ADB는 3억8793만 달러, WB는 4억4427만 달러 상당의 지원금 제공.

## ○ 대다수 거시지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경제의 대다수 거시지표는 새 정부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을 보여줌. 중앙은행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작성한 주요 경제지표 9개 중 6개가 악화,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시사.
- 중앙은행의 경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외환 보유고는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

## ○ GDP 성장률은 FY24에 5.6pc하락

- ̂경제 성장은 선거로 인한 민간 부문 활동 위축에 따라 현재 재정 대비 5.6%로 둔화될 수 있다고 세계은행(WB) 발표.
- 글로벌 대부업체도 수정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회계

연도(FY) 2023~24년 6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 낮춰 차기 회계연도 성장률을 5.8%로 전망.

○ **방글라데시의 외채상환액, 3년 내 63% 증가 예상**

- 정부의 외채 상환액은 2025-2026 회계연도까지 지난 회계연도보다 63퍼센트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외국인 대출금의 지출과 그들에 대한 이자 지불의 급증은 채무 상환 요건을 높이고 있음.
- 재무부 전망에 따르면 2025~2026년 이자를 포함한 외채 상환액은 4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지난 회계연도에 정부는 27억 6천만 달러를 상환.

□ **건설 · 인프라 동향**

○ **최고위급 PPP 회의, 20개 프로젝트의 장애물 해결 노력**

- PPP 고위 관계자들은 고위급 회의에서 현재 진행중인 각종 PPP 사업에 대한 산적인 현안 논의. 이날 회의는 모하마드 토파젤 호세인 미아 총리 겸 PPP 위원장이 주재. RHD, BBA, BR, RAJUK, BEZA, CWASA, CPA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

\*PPP사업평가위원회 간사급 위원들은 다카고가고속도로 등 현재 진행 중인 20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과제들을 분석하기 위해 PPP 사무실에서 모임. 일요일(1.21) 논의에서는 미르샤라이 산업 단지에 대한 상수도 공급, 가격 담합, 다카 우회도로 등의 문제도 다루었음.

- 미르샤라이 경제지구에는 인근 지역에 대체 공급원이 없어 메그나강 수계를 취수기로 함. 메그나강 수계의 원활한 취수원 확보를 위해 CWASA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
- 본 회의의 목적은 사업계획 대비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이행을 방해하는 장애요인과 과제를 파악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이행 가속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 **다카-서울 관계,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

- 박영식 한국대사는 COSMOS 그룹의 “Bangladesh-South Korea Relations : Prognosis for the future“ 심포지움 기조연설에서 방글라데시와 한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존의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 “한국은 인도나 중국, 미국이 아니며 (방글라데시에) 전략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언급.

- 방글라데시와 한국의 양방향 교역은 최근 30억 달러를 돌파. 한국의 방글라데시 투자 규모는 누적 금액 기준으로 다섯 번째 규모.

#### ○ **방정부, 외자사업 가속화 움직임**

- 방글라데시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480억 달러에 가까운 상당한 규모의 대외 대출 잔액에 직면한 상황. 현재 외환 보유고의 2.5배에 가까운 이 금액은 프로젝트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당 부분 미집행 상태임.

\*정부는 외자 사업을 가속화하고 해외 차관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고위급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 총리실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검토할 예정. 외자사업의 현안을 정확히 파악해 해결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개발협력사의 협력이 어려운 부분은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 이 같은 결정은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주재하는 방글라데시 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짐.

#### ○ **BSMSN공단, 제안된 투자의 4%만 실제 실행**

- 방글라데시 최대 경제지대인 방가반두 셰이크 무지브 실파 나가르 (BSMSN)는 전략적 위치로 국내외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국가 교역의 판도를 바꿀 예정이었으나, 실제 시행은 예상보다 더딘 상황

\*채토그램(Chattoqram)의 약 33,800 에이커의 땅에 건설된 BSMSN은 다카(Dhaka)에서 200 킬로미터, 채토그램(Chattoqram) 항구와 샤 아마낫(Shah Amanat) 국제공항에서 7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 교통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BSMSN은 지난 4년 동안 185억 달러에 달하는 국내외 투자 제안을 유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 그러나 2022년 11월 경제 구역 출범 이후, 이러한 제안의 실제 시행은 예상보다 훨씬 더 더디게 진행. 이로 인해 방글라데시 경제 구역청(BEZA)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부적절한 가스 공급 및 기타 유틸리티 인프라 제공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이, 제안된 투자의 단지 4.15%인 7억 6,800만 달러만이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들어오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8,000만 달러 수준에 그친 것임.

#### ○ **BEZA, BSMSN의 갈증 해소를 위해 해수담수화를 계획**

- 방글라데시 경제구역청(BEZA)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 지역의 지하수 수위 저하와 수원의 염도 증가에 따라 해수담수화를 시행함으로써 방글라데시 최대 산업지대인 BSMSN 지역의 담수 위기를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BSMSN는 담수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 최종 결과물 도출까지는 1년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 초기에 BEZA는 하루 3천만 리터의 담수화가 가능한 수처리 공장을 건

설할 계획. 이 공정을 위한 용수는 차토그램의 미르사라이 지역에 있는 벙골만의 샌드위프(Sandwip) 수로에서 조달할 예정. BEZA 당국은 11월 14일 "BSMSN에서의 담수화 공장 설립 타당성"이라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컨설턴트 선정 입찰 절차에 착수.

- 당국은 또 하루 5천만 리터 규모의 수처리 공장을 설립하고, 찬드푸르의 파드마-메그나-다카티아 강 하구로부터 15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하루 5억리터의 물을 공급하는 등 다른 사업도 추진.

\*BSMSN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지역 전체에 대한 용수 수요 예상량은 2025년 하루 3억6400만L, 2030년 5억1600만L, 2035년 7억3000만L, 2040년 10억3300만L로 추정. 이러한 수요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페니-무후리-실로니아 강에서 매일 1억 리터, 스몰 페니 강에서 4천만 리터, 빗물 1억 7천 9백만 리터, 페니 오스만푸르 정수장에서 1억 5천만 리터, 모흐라 정수장 단계-02(할다 강)에서 9천만 리터, 해수 담수화를 활용하여 2억 리터를 생산하는 것이 포함. 현재 EPZ를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지역은 물 1,000리터당 Tk37 ~Tk40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 이 지역의 상수도 공급이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에 의존하기 때문에 BSMSN내의 공장들이 비용 상승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CWASA AKM 파즐라라 청장은 차토그램市에서 정부보조금을 활용해 상업용수 1,000L당 Tk37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찬드푸르에서 BSMSN으로의 상수도 공급은 PPP 모델을 따를 것이며, 정부보조금 없이, 수도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힘.

#### ○ 자무나 철교, 12월 이전 개통 예정

- 프로젝트 책임자(알 파라 모하마드 마수드르 라흐만)는 “자무나(4.8km 복선 이중궤 철도 선로) 강 위에 전용 철교를 개통하는 사업이 12월 이전에 개통될 것으로, 이를 통해 북부 지역과의 철도 소통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

#### ○ 2개의 고속도로 개발 계획, 더 많은 자금을 요구

- 두 개의 초대형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는 도로 확장 작업을 제때에 완료하기 위해 기존에 할당된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요구.
- RHD(도로국) 관계자들은 25일 엘렝가-하티쿰룰-랑푸르(Elenga-Hatikumrul-Rangpur) 및 다카-실렛 고속도로(Dhaka-Sylhet highways)에 대한 추가 자금 요청.

\*2023-24 회계연도 RDP에서 ADB가 자금을 지원하는 '엘렝가-하티쿰룰-랑푸르 4차선 고속도로 개발'에는 Tk 72억80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요구. 시행사는 다카-실렛 고속도로 사업을 위해 당초 ADP에서 현재 지출액보다 높은 24억4000만 Tk를 증액하는 방안을 모색.

#### ○ 마타바리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시험 가동

- 가스-전기 동시 위기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마타바리 석탄 화력 발전소

(1,200MW) 2호기 시험 가동.

- 방글라데시 석탄발전회사(CPGCL)의 아불 칼람 아자드 상무는 22일 기자와 만나 “지난 1월 18일부터 시험 가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2호기가 400MW급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오는 3월 콕스바자르 지역의 모하쉬칼리 섬에 위치한 발전소 2호기의 상업운전일(COD)을 기대중.
- 1호기 (약 600MW)에서 12월 26일에 상업용 전력 생산을 시작했으나, 현재 1호기는 폐쇄된 상태임.

#### ○ 다카고가 고속도로, 올해 완공 예정

- 오바이들 퀴터 도로교통교량부 장관은 9일 다카고가도로(Dhaka Elevated Expressway) 건설이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힘.
- 다카고가도로 건설공사의 50%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다카공항에서 팜게이트(Farmgate)로의 구간은 이미 운영중으로, 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남은 건설공사는 2024년까지 마무리될 예정.
- 파드마 대교에 대한 내용으로는, 장관은 매일 Tk 2크로어의 통행료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금까지 총 통행료 징수액은 Tk 1,252크로어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이 수입원이 국가 경제 활동에서 대교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줌.

#### □ 정치·기타 동향

- (총선) BNP, 총리의 사임, 합법적인 정부를 위한 새로운 여론조사 요구
  - BNP는 금번 총선을 취소하고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퇴진을 요구. BNP 상임위원은 새로운 행동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총선) 미국 국무부, <sup>방</sup>총선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음
  - 총선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힘. 미 국무부는 워싱턴이 선거 부정이 발생했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하고 폭력을 규탄했다고도 밝힘.
- (총선) 아와미리그, 2/3이상 압도적 승리
  - 아와미리그는 제12대 총선에서 2/3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AL이 주도하는 14당 연합이 4선 연속 정권을 수립할 기회를 다시 얻음.

- 아와미리그(AL)가 지원하는 후보들이 222석을 차지했고 대부분이 AL 소속인 무소속 후보들이 62석을 차지. 자티야당 후보들은 11석을 차지했고 방글라데시 노동자당, 자티야 사마즈탄트릭 달자소드, 칼리안당 등 3개 정당의 단일 후보 3명이 각각 지역구에서 승리.

아와미리그		무소속		자티야당		기타
前의석수	선거결과	前의석수	선거결과	前의석수	선거결과	노동당, 칼리안당 등 각 1석
205	223	54	61	13	11	

  

The dot plot visualizes the seat distribution for the 223 seats won. It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Awami League (purple), Independent (orange), Jatiya Party (teal), and Not Declared (grey). The Awami League and Independent groups together account for 223 seats, while the Jatiya Party and Not Declared groups account for 19 seats.